

3/3(수) 룯기 묵상 2

룯기 1:8-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십 년간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모압에서 얻은 그녀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 중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룯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게 됩니다.

나오미의 결단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나 갑자기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8절상,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나오미가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부들까지 모두 떠나게 되면 나오미는 말그대로 빈털털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첫째로, 며느리들의 앞 길을 축복해 줍니다(8절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칫 우리는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며느리들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의 말씀은 나오미와 자부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딸(11절)’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들의 좋은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자세히 설득합니다(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설명한 오늘 본문 11-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5:5-6절에 기록된 ‘계대 혼인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신 25:5-6,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당시 남자들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이 ‘계대 혼인법’은 이스라엘의 종족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지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의 며느리가 행했던 일도 현대의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종족보존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한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룯기서로 돌아가서 나오미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재혼을 하기도 어렵고 만약 재혼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자부들에게 주기에는 아직 세월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룯의 결단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룯은 시어

머니를 붙잡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 이 구절에서 ‘붙좃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는 뜻으로 성경 속의 용례들을 보면 부부관계(창 2:24),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시 63:8)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관계(신 10:20)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석 학자들은 룯의 결단이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로부터 받았을 신앙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또 룯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6절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에 나오미는 몇 번이고 만류하지만 룯의 결정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승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만약 신앙에 있어 본이 되지 못했다면 룯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나오미를 결코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룯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룯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룯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룯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나오미, 룯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미래가 캄캄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고난은 터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를 향한 그의 복되고 선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조차 우리는 그 분의 허용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얀마 땅을 위한 기도: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미얀마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협조가 있게 하시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햄튼 3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홍리브가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